

사이비(似而非) 민심

언론은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당위가 흔들리고 있다. 민심을 반영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심을 역지스럽게 끌고 가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는다. 시민들은 언론이 민심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따랐다. 언론이란 거울에 성애가 두텁게 끼더니, 이젠 거울이 깨질 조짐마저 보인다. 그래서인지 뉴스를 회피라는 현상이 생겨났다.

우리 언론은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1차 의무를 등한시한 채, 여론형성(프레임)이라는 힘을 과시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한다. 그러니 무리수가 따르고 신뢰는 추락한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 높이만 올리는 꼴이다. 그 사례들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기사만 점검해도 확연하다. 이번 설 민심을 전하는 기사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 《윤석열 정부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실망》…광주 전남 민심, 단단히 뻘난 이유》라는 제목의 디지털타임스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화면에 올랐다. 광주 4명, 전남 2

■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전 신문과 방송 편집장



명 등 6명의 국회의원이 전하는 내용만으로 기사화했다. 이 기사는 하루 동안 댓글 4466개가 달렸다. 클릭수 대박 조짐이 보였는지, 세 시간 후에는 뉴시스가 《국정 난맥·출구 없는 정쟁…광주·전남 설 민심, 한숨 가득(종합)》이라는 제목의 비슷한 기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 세 명을 더 등장시켜 9명의 발언을 묶어 기사화했다. 바른 기사일까? 아니다. 특정 지역, 그것도 현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만을 담았다. 한 기사에 취재원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좋은 기사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취재원의 다양성이 전제될 경우다. 그렇지 않

으면 극단적인 편향기사가 된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9월 9일 토요일 자 동아일보. 5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날 자 동아일보는 한국언론사에 남을 왜곡보도로 지역갈등을 조장했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이였다. 영남지역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이 기사는 전국 도별 부도율을 토대로 쓴 기사였다. 광주지역 기업부도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과 건설업체 부도로 영남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 부재복도 대구와 부산만 부도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편집했다. 특별취재팀이란 바이라인(기사작성 자 이름)을 달았다. 피해지역 현지 르포 기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사실을 왜곡해 지역갈등을 조장한 신문 제작이었다.

설 민심을 전하는 오프라인 신문의 보도방식도 성의가 부족하다. 한겨레는 25일자 지면 신문에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설 민심까지 정당이 가공한 진영 논리로 들어야 하는가? 먹기 좋게 가공된 보도자료에 순치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역습

거울이 지나가는듯하다가 동장군의 역습을 받았다. 근자에 체감한 추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코로나19와 마스크 전쟁을 치르다가 퍼펙트 스톱(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공격을 받는 와중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습으로 LNG도시가스 요금이 30~40%대 인상됐다. 여아가 “상대방 탓”이라고 설전 중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탓이다.

코로나19와 맞닥처 싸울 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선진국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제일 작았다. 서민 주머니 사정을 살필 수밖에 없는 전 정부 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만이라도 인상을 자제했

을 것이다. 그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했던 당시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다. 대선 기간 중엔 여아가 서로 표를 얻으려고 공공요금 인상을 미뤘었다.

누구의 책임인가.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엔 점진적으로 라-우 전쟁 여파에 따른 가스 요금 인상분을 적절하게 안분했어야 했다. 한꺼번에 인상하다 보니 사단이 났다. 지금의 야당 탓인가. 지금의 여당 탓인가. 인상된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로 인한 유럽의 주변국가 압

■ 신 박사의 ‘공감숨’

신 훈

행정학박사



력은 라-우 전쟁이 곧 끝나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하이테크 현대전이라 할지라도 야만과 능욕이 횡행한다. 전쟁은 인류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 우리는 이를 폭도 중에 있다.

살피건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젤렌스키의 “결사항전” 촉구

교적 낭패를 봤다.

정치인의 그릇된 판단은 국민을 한순간에 불구덩이에 몰아넣을 수 있다.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은 흑자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니들은 전쟁의 무서움과 참혹함을 몰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북 강경대치와 전쟁불사를 옹호한다. 아이러니다. 이해불가 현상이다. 대한민국엔 지금 아이러니한 정치와 구호가 반복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이다.

국제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들보다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민생 안정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이 가져다 줄 역습을 거시 경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와 정책 집행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층,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때다. 가스요금 인상이 가져다 줄, 다양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차디찬 서민경제에 정부가 냉기를 보태선 안 될 일이다.

사회제도와 신앙

■ 조현정의 오늘의 성찰

독자·예수살기 대표



나쁜 사회제도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릇된 신앙이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자기 속의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생활의 불합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 것. 둘째, 다가를 미래 사회의 합리성에 대해 지극히 순수한 이념을 가질 것.

사회제도는 불합리와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비합합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혐오

감을 느끼는 반면, 합리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뚜렷이 의식할 때는, 자연히 그것을 향해 정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불합리에서 생기는 병폐를 숨기지 말고 합리적인 생활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인류의 스승이 해야 할 임무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상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선입견을 버리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 바람의 방향도 살피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돛을 올리는 사공은 절대로 목적인 항구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헨리 조지)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폭력적 강제에 의한 개혁도 악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악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생활 변화뿐만 아니라 선과 도덕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다.

사이비 신앙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 거기에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살게 하는 것은 개인에 있지 않고 전체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하는 것이요 나라없이 사는 못 사는 것인데, 그 전체는 또 실지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게, 곧 자아에 있다.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허공에 있지 않고 내게 있다. 나라는 민(民)이요, 민은 나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만 아니라 땅의 나라도 내 안에 있다. 하늘나라, 땅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 몸을 말하면 땅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말하는 것이다. (함석헌)

주요 출처: 톨스톨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설

새해, 글로벌 질서 변곡점 주목해야

‘중국 저성장·우크라이나 전쟁’ 행배 주시하자

2023년엔 몇가지 글로벌 환경 도전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중국발 변수다.

1979년 미중 수교이후 세계의 성장엔진 이 돼온 중국 경제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쳤다. 중국의 당초 성장률 목표치(5.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코로나 19 첫해인 2020년(2.2%)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 말기 1976년(-1.6%) 이후 50여년 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GDP의 미국 추월 시기와 그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2001년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10년까지 10% 안팎의 초고속 성장을 질주하던 중국이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코로나 거저효과가 사라진 지난해 3%, 올해도 4%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거대인구·저임금’이 주도한 중국의 고속성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85만명이 줄었다.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지난 10년간 4000만명이 줄었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요인이다. 여기에다 중국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트럼프-바이든 미국 정부와 전방위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고물가를 이유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중국도 다른 신흥국처럼 환율 방어와 기업 부채 문제로 속앓이를 해왔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지정(地政)·지경학(地經學) 적으로 뿔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매년 수백억달러의 흑자를 안겨줬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초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세계패권 항배와도 직결돼 있다. 올해가 마중 패권 다툼의 균형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면 팽팽한 신냉전 구도가 장기간 국면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지 모른다. 정부나 기업들은 교역 다변화는 물론 북핵과 연계된 외교 안보 면에서도 면밀한 정세 판단이 요구된다. 둘째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해 2월에 시작돼 2년차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항배는 기존 미-중-러 신냉전 구도에 파장을 몰고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안보와 함께 무엇보다 북핵을 해쳐 나가야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북핵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는 코로나와 신냉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했던 시계(視界)가 일정수준 견딜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다. 한발 앞서 가는 정부의 정세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김용환선생

초등학교 교과서 ‘도의생활’에는 김용환 선생의 그림이 실려 있었는데 그림이 너무 좋아 공부 겸 따라 그려 보았다.

만화 ‘코주부’로 유명한 김용환 선생은 펜화, 역사화가로도 유명하며 미군정에서 패낸 듯한 잡지 ‘자유’의 ‘에도 멋지게 살려 나를 매혹시켰다.’

어쩌면 거기서 붓터치의 기초를 배운 지도 모르겠다.

미술 평론가 최석태는 어떻게 그 뱀새를 맡고 “형의 선은 김용환선생의 선이 기초예요” 한다. 여우다.

내 그림 선은 김용환선생의 선에 김종래, 박기당, 산호선생의 선들이 녹아들어 있다.

이후 보게 된 김홍도, 신윤복, 이희재, 오세영 등 수많은 화가와 만화가들의 선이 알게 모르게 녹아 들어와 나의 선이 된 것이다. 지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중1그림)



경기신문

www.kgnews.co.kr

제2창간 2022년 8월 26일
첫 발행 2002년 6월 15일

문화 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김대훈
논설주간 심홍식

인쇄인 박장희
편집국장 고영규

인쇄본사 사장 이한성
인쇄편집국장장정대 정민교

본사 : 016949

용인시 기흥구 용덕4로 15번길 3-11

대표전화 : 031-268-8114

수원본사 : 0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대표전화 : 031-268-8645

인천본사 : 01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대표전화 : 032-442-8114

광고문의 :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33

구독신청 : 전화 031-268-8335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 1,000원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시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1-267-4459 / 팩스 031-268-8393 / e-mail opinion@kgnews.co.kr

※ 외부 기고는 경기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